



KIA 타이거즈 1번 타자 류지혁

“가을에는 야구가 재미있어요”



KIA 타이거즈가 4년만의 '가을 잔치'를 앞두고 방망이를 예열하고 있다.

KIA는 9월 9연패의 악몽을 딛고 포스트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애를 태웠던 타선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대감은 커진다.

김중국 감독은 5일 LG트윈스와의 경기에 앞서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올라오는 것 같다. 베테랑들이 더 잘해주니까 (황)대인, (박)찬호 덩달아 그걸 보고 잘 따라서 올라오는 분위기여서 기대감도 생

최근 10경기서 29타수 11안타 타율 0.379 '불방망이' "포스트 시즌 생각에 신나... 부담감 내려놓고 즐겁게 야구"

긴다. 야수들의 경기력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타석에 서고 있는 류지혁도 좋은 페이스로 공격을 이끌고 있다. 올 시즌 톱타자로 맹활약했던 박찬호의 페이스가 떨어진 사이 류지혁이 9월 중순부터 1번에 배치돼 역할을 하고 있다.

5일 경기 전까지 류지혁은 최근 10경기에서 29타수 11안타로 타율 0.379를 기록하고 있다. 또 11차례 볼넷을 골라 출루하면서 초반 싸움을 이끌어

왔다. 팀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톱타자 역할을 맡은 류지혁은 부담감을 내려놓고 즐겁게 그라운드에 올랐다.

류지혁은 "가을이다. 이때 야구하면 재미있는 것 같다. 포스트 시즌 한다는 생각에 신나서 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또 "팀이 안 좋을 때 뭔가를 더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할 것만 하자는 생각으로 했다. 뭐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수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며 "잘 돼서 다행이다"고 웃었다.

꾸준하게 가을을 보내고 있는 류지혁은 '사이클'을 이야기했다.

류지혁은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 보다는 하던 대로 하고 있다. 딱히 달라진 것은 없는데 사이클이 좋은 것 같다"고 밝혔다.

류지혁은 포스트 시즌의 단골손님이었던 두산에서 가을 야구의 매력을 경험했다.

플레이오프에서 4경기, 한국시리즈에서도 13경기 출전하면서 '가을 DNA'를 새겼다. 긴장감 가득한 그라운드에서 경기하면서 느낀 것은 물론 선배들에게 배운 것들도 많다.

류지혁은 "앞으로는 '가을 야구'를 해보고 싶다"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야 한다"며 "두산에 있을 때 형들이 했던 이야기가 큰 시합은 누가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못하느냐의 싸움이라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 잘하는 팀이 아니라 실수 안 하는 팀이 이기는 것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들에게 들은 그대로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그건 값진 경험인 것 같다. 그런 말 한마디가 큰 도움이 됐다. 형들에게 들었던 것을 토대로 애들한테 이야기해주면서 가을 야구를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탈리아 프로축구 나폴리의 수비수 김민재(26·왼쪽)가 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요한 크라위프 아레나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 리그 A조 3차전에서 아약스(네덜란드)를 상대로 공을 지켜내고 있다. 나폴리는 아약스에 6-1로 대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김민재의 나폴리 '지지 않는 팀' 됐다

UCL 조별리그 A조 3차전 네덜란드 아약스 6-1 대파

이탈리아 프로축구 나폴리가 '괴물 수비수' 김민재(26)를 영입한 뒤 '지지 않는 팀'으로 변했다.

나폴리는 5일(한국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요한 크라위프 아레나에서 열린 2022-2023 UCL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홈팀 아약스(네덜란드)를 6-1로 대파했다.

앞서 잉글랜드의 리버풀(4-1승), 스코틀랜드의 레인저스(3-0승)를 잇달아 제압한 나폴리는 이로써 3연승을 달리며 A조 선두(승점 9) 자리를 굳게 지켰다.

나폴리는 세리에A에서도 무패를 달리고 있다. 8라운드까지 6승 2무를 기록하며 리그 선두에 올

라 있다. 두 대회 전적을 합치면 공식전 11경기(9승 2무) 무패다.

나폴리가 시즌 공식전 첫 경기부터 11경기째 무패를 기록한 것은 3부 리그에 있던 2005-2006시즌(16경기 무패) 이후 처음이다.

세리에A로 복귀한 뒤인 2008-2009시즌에는 공식전 첫 경기부터 10경기 무패를 달린 바 있다. 올 시즌 다른 빅리그에서도 10경기 넘게 무패를 달리는 팀은 2개뿐이다.

나폴리 무패 행진의 원동력으로는 흐비차 쿠바라츠헬리아(6골·이하 공식전 득점), 피오트르 지엘린스키, 자코모 라스파도리(이상 4골) 등 맹활약의 공격진이 첫손에 꼽힌다.

올 시즌을 앞두고 영입한 김민재가 버틴 강건한 수비진도 나폴리의 좋은 경기력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김민재는 확실하게 상대 공격수를 마크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뛰쳐나가 패스를 차단하는 플레이로 현지 팬과 언론의 찬사를 받고 있다.

패스도 좋아 공격 전개에 큰 도움을 주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머리로 골도 넣는다. 김민재는 정규리그에서 2골을 기록 중이다.

이날 아약스전에서도 김민재는 변함없는 활약을 펼쳤다. 공중볼 따내기 3회, 볼 경험 1회를 시도해 모두 성공하고, 4차례 공을 가로챘다. 패스 성공률은 82%였다.

전반 18분에는 김민재가 상대 롱패스를 가로챈 것이 동료 선수 3명을 거쳐 라스파도리의 헤더 동점골로 연결됐다.

아약스의 골잡이 모하메드 쿠두스는 전반 9분 선제골을 넣은 뒤 김민재와 아미르 라흐마니, 두 센터백에 막혀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지 못했다. /연합뉴스

광주FC 이정호, K리그 '9월의 감독상'

광주FC의 이정호(사진) 감독이 '9월의 감독'이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9월 '파라다이스시티 이달의 감독상' 주인공으로 이정호 감독을 선정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이정호 감독은 광주가 9월 치른 4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이끌면서 승점 12점을 만들었다. 같은 기간 K리그1, K리그2에서 전 경기 승리를 거둔 팀은 광주가 유일하다.

광주는 9월 첫 경기였던 37라운드 김포 FC와의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뒀고, 38라운드 전남드래곤즈전은 3-2 승리로 장식했다.

이어 FC안양을 2-1로 꺾으면서 우승 고지 9부 능선을 넘은 뒤 40라운드 휴식기를 보내는 동안 안양의 패배로 '챔피언'에 등극했다.

광주는 우승 확정 후 첫 경기에서는 안산 그리너스를 3-0으로 제압하면서 K리그2 최다 승점 신기록도 작성했다.

4연승 행진과 함께 4경기를 남겨두고 최단 기간 우승을 확정하는 등 광주는 최고의 9월을 보냈다.



광주 지휘봉을 잡은 지 한 시즌 만에 우승을 이끈 '초보 사령관' 이정호 감독은 "조기 우승에 그치지 않고 최다승, 최다 승점, 전 구단 홈 승리로 시즌 끝까지 기록을 쌓아 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K리그 9월 '파라다이스시티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한 이정호 감독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제작한 기념 트로피와 파라다이스시티 브랜드 '디렉스 스위트' 숙박권을 받는다. 한편 이정호 감독은 지난 4월에도 4승 1무를 지휘하는 등 광주를 1위로 올려놓으면서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저지 62 홈런...역대 ML 아메리칸리그 최다

에런 저지(30·뉴욕 양키스)가 아메리칸리그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세웠다.

저지는 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2022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더블헤더 2차전 방문 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1회초 선두타자 홈런'을 작렬했다.

저지는 텍사스 선발 제루스 티노코의 시속 142km 슬라이더를 공략해 왼쪽 담을 넘어가는 시즌 62호 홈런을 쳤다.

9월 29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경기 뒤 6경기 만에 나온 홈런이다. 저지는 올 시즌 홈런을 62개로 늘리며 팀 선배인 로저 매리스가 1961년에 세운 양키스 소속 최다 홈런이자, AL 기록이었던 61홈런을 넘어섰다.

저지보다 더 많은 홈런을 단일 시즌에 친 선수는 배리 본츠(73개), 마크 맥과이어(70개·65개), 새미 소사(66개·64개·63개) 등 3명뿐이다. 이들은 모두 내셔널리그(NL) 소속이었다.

또한 이들 3명은 금지 약물이 MLB를 지배한 1998~2001년에 홈런을 몰아쳤다. 현지 팬들은 저지를 '클린 홈런왕'이라고 부른다.

이날 더블헤더 1차전에서 홈런 없이 5타수 1안타에 그친 저지는 2차전 첫 타석에서 62호 홈런을 쳤다. /연합뉴스



에런 저지